

<http://dx.doi.org/10.17703/JCCT.2023.9.2.285>

JCCT 2023-3-35

미·중 무역분쟁이 글로벌 공급망에 미친 영향

The Impact of the U.S.-China Trade Dispute on the Global Supply Chain

김동호*, 곽카스**

KIM DONGHO*, GUO KESI**

요약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은 코로나 전부터 시작하고 범유행(pandemic) 속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와 이때 완화되고 있는데 중국 제조업 산업 발전으로 미중 무역 간 상호의존도가 높아졌다. 하지만 글로벌 전체 무역량이 팬데믹 전보다 적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미국과 중국 공급망의 변화에 대한 분석한 다음에 그 상황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안에 대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하지만, 요즘 새로운 변화가 다시 일어나고 있다. 2022년 하반기에 중국 상하이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중국 산업사슬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수치를 엄격하게 작성하면서 업계 중 상당수 공장과 기업들이 당분간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2023년에 현재 전 세계적으로 나라들이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 그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중국은 핵심 과학기술의 연구 개발 역도를 강화하고, 국제와 국내의 이중 사이클을 통해 혁신 생태계의 활력을 복돋아 글로벌 공급사슬의 상류로 이동시켜야 한다. 이럴 때 한국은 미국과 좋은 무역동반자 관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공급망에서 장점을 발휘하여 자신의 위치가 확고해야 한다.

주요어 : 미·중 무역분쟁, 미·중 무역, 팬데믹, 공급망, 공급사슬

Abstract The trade dispute between China and the U.S. began before Corona and is easing at this time by bringing new changes to the pandemic, and the development of the Chinese manufacturing industry has increased interdependence between the U.S. and China. However, the overall global trade should be less than before pandemic, and Korea's response strategy should be made serious at this time. However, new changes are taking place again these days. With the recent outbreak of COVID-19 in Shanghai, China, new changes are expected to occur in China's industrial chain. As the Chinese government strictly creates quarantine figures for COVID-19, many factories and companies among industries are forced to close for a while.

As economic globalization and division of labor continue to deepen, multinationals choose suppliers and industrial chains within the world to form a global supply chain structure to pursue cost minimization and profit maximization. China is an indispensable part. Whether it is China, the U.S. or Korea, it can be a risk and an opportunity now.

Key words : U.S.-China trade dispute, U.S.-China trade, Pandemic, Supply network, Supply chain

1. 서론

신중국 수립 이후 정치적 이유로 미·중 무역 관계가 20년간 단절됐다. 그러나 미·중 관계 정상화 이후

*정회원, 상명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제1저자, 참여저자)

**정회원, 상명대학교 국제통상학과 박사과정 (교신저자)

접수일: 2023년 2월 25일, 수정완료일: 2023년 3월 9일

게재확정일: 2023년 3월 14일

Received: February 25, 2023 / Revised: March 9, 2023

Accepted: March 14, 2023

**Corresponding Author: gksqwe920415@naver.com

Dept. of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SangMyung Univ, Korea

미·중 교역은 큰 활기를 띠면서 1979년 24억 5,200만 달러에서 2021년 7556.45억 달러로 308배 가까이 성장했다. 미·중 관계가 정상화된 이래로 양국 쌍무 무역 관계의 발전은 전에 없이 유리한 환경을 얻게 되었고 미·중 무역의 발전이 신속하고 양국의 무역 관계는 나날이 밀접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과 중국은 세계 경제체제에서 두드러지는 양대 경제권으로서 양국 무역 관계의 건전한 발전은 미·중 양국 경제에 큰 촉진 효과를 줄 뿐 아니라 세계 경제의 무역과 금융시스템의 정상적 운영을 유지하는 데도 큰 의미가 있다.

양국 간 경제 연계가 긴밀해지면서 양국 간의 통상마찰은 기술적 그리고 경제적 마찰에서 제도적 정치적 마찰로 확대됐고, 미·중 양국의 핵심 이익에 갈수록 부딪혀 무역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양국 무역마찰의 근원은 국가이익의 차이에서 비롯되며, 미국과 중국은 독립적이고 덜 주권적인 국가로서 이익의 분배에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고, 무역 이익에 대한 다툼은 항상 양국 무역 관계의 발전을 수반하며, 양국의 이익 교차점이 많을수록 무역마찰이 많아진다. 특히 냉전 이후 국제사회에서 '초강국 하나 있고 강국 여러 개 있다' 체제를 갖추면서 미국은 전례 없는 좋은 기회를 만나 글로벌 질서의 리더를 더욱 확립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리더 지위 도전을 막기 위해 중국의 굴기를 경계해 왔다. 그러므로 미국은 중국에 대한 억제전략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고, 중국과의 무역 관계로 갈수록 정치적인 색채를 갖게 된다.

2008년 금융위기로부터 미·중 관계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고, 금융위기는 미국 주도의 국제관계 시스템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으며, 세계에 대한 미국의 호소력과 영향력을 떨어뜨렸다. 금융위기로 중국을 비롯한 신흥세력의 위상과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면서 미·중 관계도 냉전 후 중요한 변혁의 순간에 놓여 있다. 미·중 관계의 향방은 양국뿐 아니라 중·한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세계 경제의 정치 발전 구도를 결정지을 것이다.

姜崢睿(2017)는 "협력과 마찰: 미·중 무역 관계 발전 연구"에서 "미·중 무역 발전 역사를 분석해 보면 양국 경제·무역 관계의 상호의존성이 높아지고 있고, 현재로서는 중국의 대미 의존도가 더 높은 등

미·중 무역 불균형이 존재하는 그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주장한다.

胡德宝, 趙敏(2021)는 "코로나19와 통상마찰 이중 불확실성 속 중국 공급망 재구축 전략연구"에서 "글로벌 산업 사슬의 한 부분으로 코로나19에 큰 충격을 받은 중국이 제조업 산업 사슬의 내적 순환을 주제로 하는 이중 순환 구성을 서둘러 만들도록 불확실성이 압박한 것도 새로운 경제 업태를 낳고 있다."라고 주장한다.

杜志遠(2021)는 "코로나19 '인태가치사슬' 부상과 구축" 연구에서 "세력다툼과 지리가 교차하는 중추 지역인 인도·태평양 지역의 가치사슬 부상과 구축은 글로벌 가치사슬 격변의 상징적 성과다."라고 주장한다.

黃群慧(2020)는 "코로나19가 공급 쪽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단기 및 장기적 시각" 연구에 "공급 쪽에서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노동력 정지, 기업의 조업 중단, 공급망 중단과 같은 단기적인 충격을 인식하면서 기술 변혁, 생산방식 변화의 장기적인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을 똑똑히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김희준, 박명섭(2020)은 "한국은 역시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로서 미·중 무역분쟁의 발생 과정과 경제적 영향을 고찰하여 향후 타국과의 통상마찰 발생에 따른 위험성을 사전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달리 차별성이 있고 본 연구 주제는 미·중 무역 관계에 관한 분석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미·중 무역 관계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위 연구들뿐만 아니라 미·중 무역전쟁이 한·중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해석해 한국은 한중 무역 문제를 다룰 때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구성은 2장에서 미·중 무역분쟁에 대한 자세히 분석하고 3장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미국과 중국 공급망의 변화에 대한 분석한 다음에 4장에서 그 상황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안에 대한 구체적으로 제시한 다음에 5장에 결론은 도출하고자 한다.

II. 미·중 무역분쟁의 특성과 원인

1. 미·중 무역분쟁 발전과정과 특성

1)미·중 무역분쟁 관련 발전과정

1979년 미·중 수교가 정식으로 시작된 후, 중·미 관계 발전의 주요 단계는 다섯 단계로 나타났다. 1~5단계는 다음과 같다.

1단계: 1979~1989년 닉슨 대통령의 방중 이후 양국 관계가 해빙되고 우호 발전기에 접어들었다는 점이다. 미국과 중국이 각자의 전략적 수요에 기반을 둔 무역을 시작하면서 교역액은 빠르게 늘었다. 중국 세관에 따르면 미·중 직접 무역액은 10년 사이 24억 5,000만 달러에서 122억 5,000만 달러로 급증하는 등 미·중 교역이 급성장하고 있다.

2단계: 1990~2000년 사이 양국은 가격 흥정에 들어갔다.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미국의 주요 분쟁 대상자들은 중국으로 옮겨가 중국의 최혜국 대우와 '입관세금' 문제를 놓고 중국과 끊임없이 협상을 벌여왔다. 이 흥정의 10년 동안 미중 무역의 협력과 마찰은 양립했다.

3단계: 2001~2016년 중국의 WTO 가입으로 양국 간 통상마찰이 높아지는 추세여서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여러 차례 반덤핑 조사를 벌이면서 양국 관계는 갈등 누적기에 접어들었다.

4단계: 2017~2018년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미·중 무역 충돌이 발발하면서 미·중 무역 정세는 2018년 4월 본격적인 무역분쟁이 시작됐다.

5단계: 2020년 초 1단계 무역협정 체결은 미·중 간 충돌 격하기를 의미하며, 이번 협정 체결로 무역분쟁이 계속돼 미·중은 물론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1979년 중국과 미국이 수교한 이래 미·중 양국의 공동노력을 통해 양국의 교역이 빠르게 확대됐고 특히 중국의 WTO 진출로 미·중 교역이 강화되는 동안 미·중 무역 발전도 두드러졌다.

2)미·중 무역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①양국 간 무역 발전 속도가 빠르고 변화가 나날이 완화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경제 발전이 빠른 나라이고, 중국은 가장 빠른 개발도상국으로 양국 무역 관계가 정상화된 이후 줄곧 무역이 빠르게 발전해 왔으며, 교역 규모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1979년 24억

5,200만 달러에 불과했던 미·중 교역액은 2013년 5,210억 200만 달러로 35년간 35배 늘었다.

②미·중 무역 상품구조가 갈수록 고급화된다.

1990년대 이후 미·중 양국 교역은 완제품 교역 위주로 이뤄졌고 완제품 교역은 90%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완제품 교역에서 자본과 기술 간 밀착형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4년 43%에서 2014년 54%로 높아진 면에 노동집약형 상품의 비중은 48%에서 35%로 상대적으로 줄었다. 미·중 무역 관계가 발전하면서 양국 교역상품의 결과도 고급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중국 무역상품의 결과 변화는 중국의 산업화가 심화하면서 중국의 수출상품 구조가 날로 개선되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이다.

③중국 대미무역은 선 적자 후 흑자의 수지 상태 보인다.

미·중 무역이 정상화된 이래, 두 개의 서로 다른 단계를 거쳤다. 1단계는 1979~1992년에 전년도 적자였고, 2단계는 1993년 이후로 흑자행진을 이어갔고 흑자 폭은 계속 늘고 있다. 미·중 무역 불균형은 미·중 무역 발전의 가장 중요한 걸림돌이자 이익 중복 이슈라고 할 수 있고, 환율 개혁, 시장 개방 등에 대한 미·중의 이견도 이와 관련이 있다.

④양국 무역마찰이 날로 일상화된다.

미·중 무역 관계가 전면적이고 깊이 있게 발전하면서 미·중 간 무역마찰도 잦아지고 있다. 1980년 7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처음으로 반덤핑 조사를 제기하면서 신중국 건국 이래 양국 간 무역마찰의 서막을 열었다. 이후 미·중 간 통상마찰은 더 넓은 범위에서, 더 깊은 차원에서 벌어졌다. 섬유에서 철강,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자본 기술 집약적 산업으로, 화물무역에서 서비스무역으로, 무역에서 거시제도의 차원을 점차 다루고 있다.

2. 미·중 무역분쟁의 경과

2017년 시작한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긴 시간 동안 경과하고 현재도 진행 중이니 자세한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미·중 무역분쟁의 경과

Table 1. the progress of the U.S.-China trade dispute

중국	시간	미국
양국의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100일 계획 합의	2017.04	미 환율정책보고서, 중국 '관찰대상국'으로 지정
	2017.08	통상법 301조 근거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및 강제 기술이전 조사
미국 세급부과 결정에 대한 보복관세 계획 발표	2018.03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 부과 ZTE 대상 7년간 자국 기업과 거래금지 통상법 301조 조사 결과 발표
	2019.05	미국, 2,0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 관세율 10%에서 25%로 인상
미국산 제품 750억 달러에 대한 추가 관세 5~10% 부과	2019.08	미 정부 기관에 화웨이, ZTE, 하이크비전, 다화, 하이테라 등 중국기업 5개 사 장비 구매 금지 지시 화웨이와 미국기업 간 거래 재개 허용 보류
미국산 농산물(대두와 돼지고기) 400억~500억 달러 규모 수입	2019.10	25%에서 30%로 인상 부과할 2,000억 달러에 대한 처분 보류

3. 미·중 무역분쟁의 원인

미국이 대중 무역적자를 이유로 촉발한 통상마찰과 개방을 통한 무역분쟁은 상품무역 적자가 미·중 무역분쟁의 발단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낼 수 있다. 미국은 대중화물 무역의 막대한 적자를 이유로 무역분쟁을 벌이는 근본 원인은 세계 최강의 제국주의 미국이 급부상하는 사회주의 중국에 대한 경계심과 중국의 중요한 하이테크 산업에 대한 전략적 압박이다. 중국이 대미 수입 증대에 동의하는 것은 새로운 단계의 대외 경제무역 정책의 필수적 조정이라고 하지만 미·중 간 무역수지 불균형은 구조적이고 복잡하며 장기적이어서 단기간에 쉽게 해결될 수 없다.

미국의 총 화물 무역적자는 2002~2008년 확대됐다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크게 줄다가 2010년부터 회복돼 파행적으로 증가했고, 이 가운데 미국의 대중상품 무역적자 비중도 2002년 22%에서 2017년 47%로 매년 높아지고 있다. 수치상으로는 2017년 중국의 대미 화물 무역흑자가 3,752억 달러로 전체 미국 화물 무역적자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중국과

의 무역수지 불균형을 증시하고 있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왜 번번이 중국을 겨냥하는지 이해할 만하다.

미국 대 중국 상품 무역적자 거액 원인:

- ①미국 대 중국 하이테크 상품 수출 통제가 미·중 화물무역 적자를 확대했다.
- ②원산지 원칙의 통계 방법과 증계무역으로 미·중 화물 무역적자를 과대평가하였다.
- ③외국인 직접투자의 무역 이전 효과로 미·중 화물 무역적자가 확대되었다.
- ④미·중 서비스무역-국제수지 균형 표 무시한 '순오차와 누락' 미·중 화물 무역적자 부풀렸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미·중 무역 균형은 양국 화물 무역 균형, 서비스무역 균형, 경제 협력 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무역과 투자의 트래픽 균형뿐 아니라 무역과 투자의 이익 균형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포괄적 무역소유권 평가법을 채택하면 미·중 무역 관계를 더욱 포괄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III. 팬더믹 이후 미국과 중국 공급망의 변화

미국은 중국의 WTO 가입으로 세계 무역 질서 편입함으로써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였으나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을 중국 중심의 공급망 개편을 추구하여 미·중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또한 팬더믹으로 이전 공급망이 붕괴하여 공급 질서 확보가 필요한 때에 미국이 자국중심주의와 중국 확대 정책이 같은 유발로 됨으로써 이에 따라 변화는 다음과 같다.

1. 미국 공급망의 변화

최근 몇 년간 글로벌 산업 사슬의 구조가 변화하고 있고, 현재의 역세계화 물결 속에서 미국 정부는 중국에 대한 공급사슬 의존도를 더욱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다. 경제와 정치의 상호작용으로 미·중 간의 이런 경제적 상호의존은 정치적 행위의 변화를 견인한다. 표2와 같이 미국은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 환류를 촉진하고 관세 부과 등을 통해 중국을 타격하며 제조업의 세계 선두권 굳히기에 주력해 왔으며, 그 정책 수립 과정은 미·중 상호 의존

관계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표 2. 미국 무역 관련 정책 및 법안
 Table 2. U.S. Trade Policy and Bill

시간	정책명	내용
2009 .12	A FRAMEWORK FOR REVITALIZING AMERICAN MANUFACTURING	연구개발, 투자, 노동력, 인프라 등 방면에서 제조업을 촉진하고 다시 일으켜 세운다.
2010 .08	United States Manufacturing Enhancement Act of 2010	조세 우대 정책으로 제조업 환류 유도
2011 .02	A Strategy for American Innovation: Driving Towards Sustainable Growth and Quality Jobs	첨단 제조업을 우선 통과한다.
2011 .06	the Advanced Manufacturing Partnership (AMP)	첨단 제조업 협력 관계를 제시한다.
2017 .01	Manufacturing Jobs Initiative	제조업 일자리 늘리기
2017 .12	Trump tax plan	세금 감면으로 미국 제조업을 다시 유치한다.
2018 .04	Trade war	보호무역 정책을 편다.
2019 .02	Maintaining American Leadership In Artificial Intelligence	미국의 미래 산업 지배력을 확보한다.
2021 .04	The Strategic Competition Act	인도, 태평양 동맹 및 파트너국들과 협력 강화 등
2021 .04	The Endless Frontier Act	반도체, 5G 등 미국 국내 기술 및 제조 역량 강화 등
2021 .05	The Meeting The China Challenge Act of 2021	인권, 사이버 공격 등에 대한 제재 강화 등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국의 기술력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커진 가운데 나온 정책논의는 대부분 중국 능력을 제한하고 미국 자체 기술력을 강화하는 방법에 집중됐다. 《The Endless Frontier Act》는 과학기술 혁신을 미국의 핵심 역량으로 꼽았다.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첨단 통신 기술, 첨단 제조업 등의 기술에서 승자는 미래의 패권 국가가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미 연방정부는 앞으로 5G, 인공지능, 첨단 제조 등 선진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비즈니스 활용, 교육 훈련 투자를 늘려 중국을 앞서는 수준을 유지하고 미국

의 대중 산업 디커플링과 기술 경쟁의 상호 결합을 촉진해 첨단 기술에서 외국 경쟁자가 미국의 지배력을 따라잡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일부 미국 정치인들은 중국이 미국을 넘어 기술의 왕관을 따지 못하도록 중국과의 과학·비즈니스 협력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국의 부상은 미국의 아시아 권력균형 정치에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게 만들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아시아에서 일본·한국·인도 등과 파트너십을 심화시키려 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 미·중 구조적 갈등이 불거지자 미국 정부는 행정명령으로 중국에서 기업의 산업체인 이동을 추진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마비되면서 세계 경제는 고성능 레이싱카처럼 고속·고도 취약하다.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도 글로벌 밸류체인을 종전 글로벌 분포, 이익 우선에서 지역 분포, 안전 우선으로 전환시켰다. 미국은 '경제와 기술 주권'을 강조할 뿐 아니라 국가안보와 국민 생활에 관한 산업 사슬을 더욱 중시해 관련 산업의 자율적 통제와 공급 안정을 확보함으로써 공급망 현지화와 지역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지역 가치사슬 강화는 개발도상국들의 위험분화, 취약성 감소, 복원력 제고, 산업 발전을 위한 우선 사항 중 하나다.

인도·베트남 등은 이번 미국·일본·한국 등 선진국의 산업 사슬 이동을 기회로 영업법 개혁, 산업용지 증대, 관세장벽 완화 등을 통해 중국에서 넘어온 산업사슬을 이어받아 '인도·태평양 가치사슬'을 망으로 묶고 있다. 인도·태평양 가치사슬 구축은 주도국(미국), 역내 대국과 조직(인도·일본·오대리아·아세안), 역내 소국(몰디브·스리랑카), 역외 대국(영국·프랑스·독일) 등 다양한 역량으로 추진됐다.

인도·태평양 가치사슬의 전반적인 구축과 운영은 기본적으로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 미국은 '4자 안보 대화+'와 '신뢰할 수 있는 연대' 등을 활용해 인도·일본 등을 '인도·태평양 가치사슬' 프레임에 포함해 '탈(脫) 중국화'라는 비적색 가치사슬을 만들어 대중 경제의 단절과 고립을 피하고 있다. 일본·인도·베트남 등은 산업 사슬의 조정·이전에 적극적으로 나서 산업 사슬의 현지화와 다각화를 유도해 내부 균형을 맞추고 있다.

인도, 일본, 호주 그리고 아시안 남쪽 국가들과 조직들이 양자, 소변의 방식으로 경제 협력과 연계를 통해 외부 균형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스리랑카·몰디브 등은 인도·태국의 모든 주요 강대국들과 기초개발·무역·안보를 포

함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인도-아세안 등 인도-태평양 국가들은 그동안 신중했던 전략적 태도를 조금씩 가다듬고, 역외 강대국들의 이 지역 참여를 적극적으로 끌어안아 권력 중추로 만들려 하고 있다. 권력 과시와 균형, 권력 확장 요구는 프랑스·영국·독일 등 역외 대국을 틈타 인도-태평양 지역의 시험과 '인도-태평양 가치사슬' 구축에 동참하게 만든다.

"인도-태평양 가치사슬"의 구축이 점차 완성됨에 따라, 인도-태평양전략의 융합과 추진의 경제 기반을 마련하고, 인도-태평양 국가들을 지역 균형적 역량에서 지역 선도적 역량으로 변화시키고, 글로벌 가치사슬의 중심을 인도-태평양 지역으로의 이동을 가속화하고, 중국의 전략적 이니셔티브를 특히 경제 이니셔티브 등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인도-태평양 가치사슬'이 앞으로 나아갈 영향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인도-태평양 전략의 융합과 추진을 위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한다. ②인도-태평양 국가를 지역 균형적 역량에서 지역 지도적 역량으로 전환하도록 추진한다. ③글로벌 가치사슬 중심축 인도-태평양 지역으로의 이동을 가속한다. ④중국의 전략적 이니셔티브와 경제적 이니셔티브를 심각하게 압박한다.

미국 추진한 인도 태평양전략에 반면에 중국은 일대일로가 있다. "일대일로"(The Belt and Road, 줄여서 B&R)는 2013년 9월과 10월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각각 "신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를 건설하자는 합작 제안을 하였다.

표 3. 미국 인태전략 및 중국 일대일로 비교
Table 3. US Indo-Pacific Strategy and China 1on1road

	미국 인태전략	중국 일대일로
공식적 목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외교 전략	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 건설을 통한 경제 벨트 구상
궁극적 목표	동맹 및 우방국과의 연대를 통한 중국의 팽창 저지와 미국의 패권 유지	유라시아 지역에 대한 정치 경제적 패권 확립
참여국	호주, 일본, 인도 등 핵심 참여국 포함 미국의 동맹 및 우방국	이란, 파키스탄, 이탈리아 등 핵심 참여국 포함 유라시아 국가 및 국제기구
특징	인도-태평양지역 미국의 동맹 네트워크를 활용한 대중국 압박	AIB 참여국과의 경제개발 협력을 매개로 중국의 전략적 이익 추구

평가	구체적 내용 및 실행 계획 미흡	구상을 넘어 국가 전략으로 정착
----	-------------------	-------------------

하지만 미국은 중국의 일대일로를 동쪽에선 인도-태평양전략과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협의체인 쿼드(Quad)로 저지하고, 서쪽에서는 NATO로 압박하여 좌우 '협공'을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표3와 같이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에 대응하기 위한 인도-태평양전략을 내세웠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모자라고 있었다.

2. 팬더믹 이후 중국 공급망의 변화

글로벌 가치사슬 네트워크 차원에서 중국과 다른 경제국 간의 연계가 더욱 긴밀해졌고, 중국 산업의 고도화로 중국과 다른 국가 간의 상호 의존 관계가 재편됐다. 2000년과 2017년을 비교하면 유럽과 북미 밸류체인 네트워크는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급격한 변화는 아시아에서 일어났고, 중국이 일본 자리를 대체했으며, 최종 상품 부가가치를 통한 수출 무역이 세계 공급의 중심이 됐다. 중국은 다른 중심지(미국과 독일)들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이웃 나라(한국과 일본 그리고 거의 아시아 전부 나라들)와 신흥국(러시아, 브라질, 인도)과도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림1에서 원의 크기는 부가가치 수출의 양을 의미하고, 원의 선 굵기는 교역 상대 간 부가가치 유동량을 의미한다. 그림과 같이 무역이 지역 파트너들 사이에 더욱 집중되면서미국은 글로벌 가치사슬 네트워크 이미지에서 일부 국가와의 관계를 상대적으로 약화하고 있다. 단순 글로벌 가치사슬 활동은 유럽·북미·아시아 내부를 중심으로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의 수가 줄어들고 주변 교역의 대다수가 중국으로 넘어갔다. 중국이 수출량을 늘리고 다른 나라와 강한 연관을 맺고 있는 것을 보면 중국은 중간재 수출이 급증해 일본의 지위를 대체하면서도 미국의 역할을 일부 떠맡아 제2의 공급 중심지로 부상했다.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의 역할을 보면 중국은 제한된 제조업 역할에서 선진 제조·서비스업 역할로 발전했고, 최종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부품을 수입하는 의존도가 낮아져 중간재 수입이 중국 상품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0년대 50%대에서 2015년 약 30%로 떨어졌다. 이는 중국이 단순히 최종 제품을 많이 수출하는 공장이

아니라 빠른 공업을 통해 신흥 초강대국으로 부상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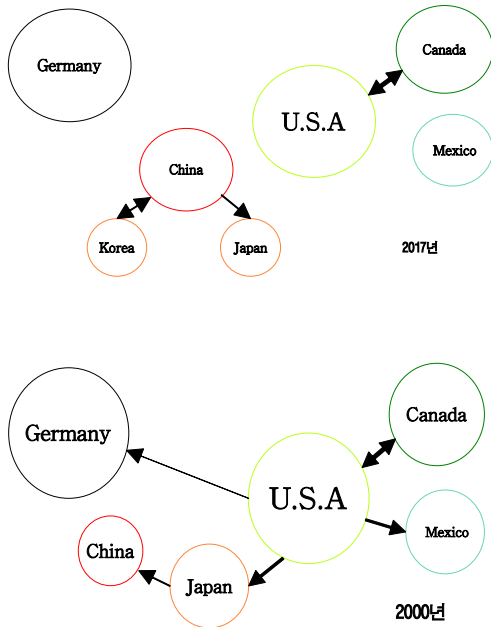


그림 1. 복잡한 GVC 무역 네트워크
 Figure 1. complex GVC trade network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중국의 참여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Wang 등이 제시한 분석 틀에 따라 전후방 연계의 참여도 지표를 적용해 나라의 한 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얼마나 참여하는지를 보여준다. 아시아개발은행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투입산출표 데이터를 활용해 중국의 글로벌 가치사슬 내 전 방향 참여도와 후방 참여도를 계산한다. 계산 결과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의 중·고 기술 제조업은 전방 참여도와 후방 참여도가 낮아져 중간재 수출과 수입에 의존하는 정도가 낮아졌고, 중·고 기술 제조업은 점차 국내 생산으로 기울고, 국내의 넓은 시장을 통해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기전·화공·운송·의료 장비·직물 등은 국제화 분업 체계 아래서 유럽과 미국 등 경제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 통상마찰이 심화하는 가운데 국가별 또는 지역별로 관련 산업의 이전을 초래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국가의 경제가 전반적으로 회복되기 어려워지고, 구미 국가들이 경제 압력을 막기 위해 산업의 환

류나 이동을 요구할 확률이 높아지며, 글로벌 산업 사슬이 어느 정도 파괴되고, 일부 공급망이 끊어졌다. 이것은 새로운 산업 변혁을 가져오고, 글로벌 공급망의 재구성을 가속한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중국 제조업은 글로벌 산업 분업과 가치사슬에서 끊임없이 위상이 높아져 글로벌 산업 사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됐다. 중국에서 코로나19 사태가 가장 심각한 시기에 노동력 공급 부족, 기업 자금 부족 등으로 공급망 일부가 일시적으로 끊겼다.

코로나19와 글로벌 무역마찰이 겹친 가운데 세계 경제가 이중 불확실성을 맞으면서 '역(逆)세계화' 경향을 보이면서 글로벌 공급망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불확실성은 오히려 중국 국내 대순환을 주체로 하고 국내 국제 쌍순환이 상호 촉진하는 새로운 발전 구도 형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의 초대형 시장 규모를 활용해 상대적으로 독립적이면서도 폐쇄적이지 않은 국내 공급 수요가 대체로 일치하는 시장을 형성한다. 일부 산업사슬 주체는 중국 국내에 있는 핵심 기업들이 산업사슬을 보완하고 있으며, 핵심 기업들이 상·하위 기업을 국내에 집중시켜 새로운 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새로운 산업 사슬을 형성하며 제조업에 내생을 강요하는 선순환을 이루고 있다. 불확실성도 중국의 새로운 경제 상태의 발전을 촉진하고 새로운 산업 사슬을 형성하며 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①의약 업계의 폭발적인 것 성장한다. ②디지털 경제가 폭발적인 성장을 보인다. ③온라인 소매 판매와 무인 배송의 급속한 증가 중이다.

IV. 한국의 대응 방안

미·중 간 무역분쟁과 팬더믹 이후에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따른 중국의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면 중국은 보호 무역과 글로벌 공급망 재구축의 위협에 직면하여, 이러한 변화가 중국의 대외무역 발전과 외국인 직접투자에 구조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예상해야 한다. 따라서, 중국 대외무역의 고품질의 안정적인 발전을 함으로써 한국의 공급망 안전을 우선시하려면 다음의 몇 가지 방면에 주의해야 한다.

①정부의 주동적인 역할을 발휘하여 기업의 조업 재개를 적극적으로 촉진한다. 소수의 핵심 분야에 초점을 맞춰 정부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조직력을 집중해야 한다. 정부는 거시적 차원에서 자원을 총괄 조정하고 통합하여

산업체슬 상하 간, 산학연용 간의 연동을 유도하고, 공동으로 기술적인 관문을 전개하여, 핵심 기술의 한계를 돌파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여 완전한 공급사슬 체계를 더욱 공고히 육성해야 한다. 기업이 가능한 한 빨리 전면적인 조업 재개를 하는 것이 코로나19의 공급충격에 대응하는 관건이다. 응급처치와 상시화 방지제어를 결합하여 분류 지도, 분규시책지침의 지도하에 기업의 조업 재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중앙에서 지방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조업 재개를 돕고 기업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련의 조치들이 마련되어 있다.

②대국의 우세를 발휘하여 첨단 기술에 대한 독자 연구개발의 강도를 높이려고 노력한다. 중국은 14억 명에 가까운 인구를 가진 대국이다. 인구가 많은 것은 과학기술 혁신에 두 가지 방향의 장점을 가져다줄 수 있다. 하나는 풍부한 인적 자원이 과학기술 인재의 대오를 성장 시키는 데 좋은 기초를 다졌다는 것이다. 둘째는 거대한 인구 규모가 거대한 과학기술 수요를 형성하는 데 유리하고, 과학기술 성과의 응용을 촉진하며, 역설적으로 과학기술 혁신도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 사회주의 제도는 큰일을 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우월성을 가지고 있어 과학기술 혁신의 거국체제를 형성할 수 있다.

③무역 파트너를 적극적으로 획득한다. 역사계화 논리가 팽배하고, 중국은 보호무역주의와 일방주의에 직면해 있으므로 한국은 중국과 이런 배경에서 '친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 보인다. 무역상대국 간 협력은 상호 부조를 통한 경제난 극복은 물론 좋은 모범이 될 수 있고 국제 협력의 발생과 국가 간의 상호 신뢰를 촉진하고 선순환을 이룬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최근 글로벌 외국인직접투자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16년 이후 전 세계 FDI는 감소 추세를 보이며, 작년까지 신고액 기준으로 최고 증가세를 보인 한국 FDI와는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 투자할 때 용지를 직접 매입해서 사업장을 짓는 방식인 그린필드(Greenfield) FDI 1위는 EU인 것으로 나타나 EU가 미·중 갈등 이후 공급망 재편의 수혜를 입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문형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최근 인텔이나 SK 투자 사례에서 보듯이 세계 주요 기업이 상대적으로 미·중 갈등에 영향을 덜 받는 EU나 선진국에 투자 선호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성우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통상본부장은 "미·중 갈등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글로벌 FDI 구조가 변화하는 가운데 리쇼어링을 중심

으로 첨단소재 및 부품의 공급망 재편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면서, "그린·디지털 뉴딜 정책을 기반으로 한 신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메가 M&A를 위해 국내에 있는 각종 해외펀딩 규제는 과감히 철폐되어야 한다"를 강조했다.

안병수(2021)는 투자와 인센티브 규모, 업종특성, 신규 증액 투자 여부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IDM인 동시에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분야 세계적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제 이들이 시스템 반도체 분야로 영역을 확장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 주도 글로벌 공급망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한국은 2021년 6월 G7 정상회담에 인도, 호주, 남아공과 함께 초청받은 것은 거대한 체스판에서 중요한 역할을 기대함으로써 그 결과 한국은 공급망 확보전략 우선시 되었다. 또한 일반 소비자나 생산재 교역이나 투자는 중국과의 기존 관계를 유지해 나가되, 반도체와 ICT 분야만큼은 미국과 동맹을 맺어야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 과정에서 한국의 자율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은 두 강대국의 갈등을 최대한 완화하여 신냉전적 줄서기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전략을 기본적인 생존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그 전략으로 제시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냉전과 패권 경쟁의 시대, 지정학적 혼란의 시대에 자조를 도모할 수 있는 국력을 확보해야 함. 둘째, 외교의 유연성과 실용성을 높여야 한다. 셋째, 이를 위해서는 한국 외교를 확고한 원칙을 통해서 정당화하고, 이를 통해 미·중 양국을 이해 시킬 수 있어야 함. 넷째,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중 사이에 끼인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이들과 함께 미·중 갈등을 완화하거나 중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함." 이렇게 전략이 세웠다.

현재 각국 정부와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중시 기준 요건의 변화는 기존 비용 절감과 수익성에 초점을 둔 효율성 우선주의에서 내외적 충격에 대비하고 극복하기 위해 위기관리 및 복원력에 초점을 두고 유연성, 안정성, 신뢰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동아시아 가치사슬을 유지하려면, 한국은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잘 관리해야만 한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중국 역내에서 자국보다 기술우위에 있는 한국에 적극적으로 기술 협력을 구애할 것이고 중국보다 기술우위 영역에 있는

분야와 해당 분야의 한국기업에 기회가 된다고 하셨다.

미·중 간 통상마찰로 일시적으로 수출 기회가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수출수요를 약화할 것이므로 기업들은 대외통상 및 수출시장 리스크관리에 주력해야 할 그것이라고 하셨다.

코로나19 사태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만큼 한국의 무역 유통경로를 적극적으로 회복하고, 불확실한 영향 아래 탄력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교역량 회복에 도움이 되는 국가 정책을 펴야 한다.

미중 무역분쟁이 한국에게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미국과 중국의 틈바구니에서 가능한 한 이해득실을 따져보고 줄서기를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 한·미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한·중 우호 관계도 최대한 복원해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좋은 무역동반자 관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공급망에서 장점을 발휘하여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하라.

또는 미·중 무역분쟁이 한국에게는 새로운 도전이라고 생각한다. 반도체나 KPOP콘텐츠를 강력한 경쟁력 가진 한국기업들은 이제는 새로운 도전 시기이다.

그래서 필자 생각은 한국은 글로벌 공급사슬 중에 중국의 역할과 위치를 잘 인식해야 하고 미국이랑 동맹 관계 유지하면서 중국이랑 관계를 잘 회복하려고 외교면에서 노력이 필요하다.

V. 결 론

세계 100년 전 유례없는 대변곡과 100년 전 유례없는 대환경이 겹치고, 전 세계 경제 구도와 경제 무역 규칙의 재편이 빨라지며, 전 세계 공급망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전 세계 공급망 체계에서의 중국의 지위에 도전을 가져온다. 글로벌 경제 지형 재편, 경제 무역 규칙 변화, 과학 기술 진보와 코로나19 충격 등 다중 요인의 영향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심도 있게 조정되고 있다. 중국은 글로벌 공급망 제조 단계로서의 위상이 변화하고 있다. 선진국은 생산제조 등 공급망 부분의 부분 부분의 현지화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보호무역주의 행위는 새로운 장벽을 구축하는 것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공급망은 개방성, 보혜성, 전 세계에서 폐쇄성, 차별성, 지역성으로 복귀하고 있다. 공급망은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단일 성과에서 경제·환경·사회의 다중 통합 성과로 전환된다. 이러한 추세 변화는 제조 대국이라는 중국의 위상과 산업 안전

에 심각한 도전이 되고, 중국 산업의 변화를 부추기고, 글로벌 공급망 참여자에서 주도자가 될 수 있다는 중요한 기회를 가져온다. 중국은 이미 전 세계 공급망 구도에 깊이 편입되어 전 세계 산업 망에서 공급망의 위세를 높이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변천 추세를 깊이 분석하여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고, 위기 상황을 기회로 만들고, 여러 조치를 병행하여, 한국의 참여와 글로벌 공급망 장악 주도권을 높이며, 국가 경제와 산업 안전을 수호하며,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요즘에 새로운 변화도 다시 일어나고 있다. 최근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다시 발생하면서 중국의 산업 체인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본다. 중국은 14억 인구 대국으로 미국과 달리 미국 인구는 3억 5,000만 명에 불과하다. 중국 정부가 코로나19에 대해서 엄격하게 방역 수칙을 만드니까 산업체인 중에 많은 공장 회사들이 어쩔 수 없이 잠시 휴업하고 있다. 그런데 글로벌 공급망의 재형성 가속화 과정에서 중국은 글로벌 공급망의 중요한 중심 중 하나로 중대한 발전 기회와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다국적 기업은 중국이 글로벌 공급망 체계에 통합되는 중요한 연결고리로서 중국이 글로벌 공급망 조정에 적응하고 제조업의 질 높은 발전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경제 세계화와 분업 전문화가 계속 심화함에 따라 다국적 기업은 원가 최소화와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해 전 세계 범위 내에서 공급업체와 산업 사슬을 선택하여 글로벌 공급망 구도를 형성한다. 중국은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다. 중국이나 미국이든 한국에 위협이자 기회일 수도 있다.

References

- [1] "China's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US \$755.645 billion in China-US trade in 2021", 2022 <https://wenku.baidu.com/view/4608834bac1ffc4ffe4733687e21af45b307fe00.html>
- [2] Jiang zhengrui, "Cooperation and Friction: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China-US Trade Relations", Ph.D. thesis of Jilin University, 2017
- [3] Hu debao, Zhao Jing, "Research on the Strategy of China's Supply Chain Restructuring under the Double Uncertainties of the New Crown Epidemic and Trade Friction", learning and practice, Wuhan Academy of Social Sciences, 2021, pp. 21

- [4] Du Zhiyuan, "The Rise and Construction of the Indo-Pacific Value Chain under COVID-19", international relations study, Shanghai Academy of Social Sciences, 2021, pp. 67
- [5] Huang qunhui, "The impact and response of the new crown pneumonia epidemic on the supply side: short-term and long-term perspectives", Economic vertical and horizontal, 2020, pp.46
- [6] Kim Heejun, Pak Myongsop, "A Study on the Background and Economic Impact of U.S.-China Trade Disputes", Trade Commerce Research, The Korean Reserch Institute Of International Commerce & Law, 2020, pp. 169-189
- [7] Li Wenqi, Xia min, "Study on the Influence of Asymmetric Dependence and Conflict in China and America", Global Scientific and Economic Outlook, institute of china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information, 2021, pp. 70-73
- [8] Trump Whitehouse, "Strategy for American leadership in advanced manufacturing", 2018 <https://trumpwhitehouse.archives.gov>
- [9] Gim Seonghan, "US Biden Administration's Public Strategy: From Lockdown to Transformation", New Asis, New Asis research institute, 2021, pp. 80
- [10] Wang Z, Wei S J, Xu X D, et al. "Measures of Participation in Global Value Chains and Global Business Cycles", Boston: Nber Working Paper, 2017
- [11]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Recent Global Foreign Direct Investment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Report", 2022, pp.1-4. <https://www.kita.net>
- [12] Li Pengfei etc,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and evolution trend of China's manufacturing industry under the global value chain", Journal of Zhengzhou University, 2020, pp.39-45
- [13] Ahn Byungsoo, "A Study on the Impact of COVID-19 to FDI and Its Countermeasures - Focused on Reform of GVC", Trade Commerce Research, The Korean Reserch Institute Of International Commerce & Law, 2021, pp. 141-162
- [14] Kim sunghan, Kim minsung, "Indo-Pacific Strategy vs. Belt and Road Initiative: Strategic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Strategic Studies,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strategy, 2021, pp. 7-44
- [15] Gong Minseok, "U.S.-China hegemony competition and Korea's response", JPI Policy Forum, 2021, pp.1
- [16] Yun Gyongwoo, "The Impact of the U.S.-China Trade War and COVID-19 Pandemic on China's Changing Role in the Global Value Chain", Culture and Convergence, The Korean Society of Culture and Convergence, 2021, pp. 708
- [17] Cheong Inkyo, Yoo Jeongho, Park Seulki, Wei min, "US' Approach for Pressing China's Economic System Reform and its Effects on World Trade", Culture and Convergence, The Korean Society of Culture and Convergence, 2019, pp. 21-45
- [18] Zhang cheng, Zhao ziruo, "The China-US Trade War in the Post-epidemic Era: Causes, Trends and Correspondence", Regional and global development, 2021.
- [19] Song Guoyou, "China-US Trade War: Motivation, Form and Influencing Factors", Journal of pacific studies, 2019.
- [20] Cheng Dening, Zhu yutian, "Challenges and Countermeasures for Korea's Supply-side Structural Reform after COVID-19", Southern Capital School, 2021.